

신 · 재생 에너지 투자확대 절실

선진국의 대체 에너지 개발 본받아야 ... 세계시장 확대 적극대응

화석연료의 고갈로 청정 ·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 ·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용혁 재생에너지 분야 책임연구원은 11월2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<신 · 재생 에너지 국제포럼>에서 “미국과 유럽 등 세계 선진국은 풍차와 태양전지, 연료전지, 바이오연료 등 신 · 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”며 “한국도 대체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다원화 측면에서도 신 · 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
강용혁 연구원은 “2010년을 기준으로 수소 · 연료전지는 900억달러, 태양전지와 풍력은 각각 300억달러와 340억달러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”이라면서 “신 · 재생 에너지 분야는 연평균 성장률이 30%에 달해 전 세계에서 신산업 또는 에너지 공급의 메가 트렌드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아울러 “미국과 일본은 각각 수소 · 연료전지와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권을 넓혀가고 있고 캐나다도 최근 수소 · 연료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”고 전제하고 “이를 따라잡기 위해 중국은 국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2010년까지 신 · 재생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소비의 12%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국가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행사는 전북도가 부안에 조성할 예정인 수소 연료 중심의 신 · 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사업을 앞두고 마련한 것으로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와 교수 등 8명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. (전주=연합뉴스 임청 기자) <저작권(c)연합뉴스-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02>